

● ISSUE REPORT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I)



# 코로나19와 역사적 시각에서 본 전염병

—  
장 문석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 코로나19와 역사적 시각에서 본 전염병

● 장 문 석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 I. 현재는 과거를 드러낸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이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다. 얼마 전까지 초연결·초지능 시대의 도래를 의기양양하게 선포하던 ‘호모 사피엔스’가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며 희생자들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시신들을 처리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류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대신 자중지란에 빠져 서로 싸우고 있다. 사회적·인종적 편견과 혐오라는 사악한 촉수가 인류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그런데 기시감이랄까, 이 모든 풍경이 어디서 본 듯하다. 그렇다. 현재는 과거를 드러낸다. 수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역사의 먼지 속에 망각된 팬데믹이 야기한 패닉의 사례들을 다시 들춰내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겹치면서 역사가 항상 반복된다는 인상이 강화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창궐을 지켜보며 가까운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야기한 참상을 떠올린다. 그런가 하면 과거 스페인 독감이 고조에 달할 때 사람들은 더 먼 과거의 흑사병이 초래한 비극을 떠올린다. 당시 한 미국 의과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피부가 검푸르게 변색되는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다.”

기실, 흑사병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다.”<sup>1)</sup> 현재가 과거를 호출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호출하는 것이 공포를 배가시키기 위함은 아니다. 오히려 비이성적인 공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의 탐구가 필요하다. 과거를 돌이켜 보는 행위 자체가 현재와 거리를 두며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과거를 탐구하면서 “호모 사이언티피쿠스의 오만(hubris of homo scientificus)”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sup>2)</sup>

지난 세기에 많은 과학자들은 전염병이 퇴치되었다고, 또는 곧 퇴치될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퇴치되기는커녕 전염병은 눈덩이처럼 불어 현재 팬데믹이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는 혼국이다. 오늘날 질병 과학자들은 퇴치 선언은 고사하고 다음 번 팬데믹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눈앞의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에이즈라는 팬데믹도 3,000만 명 가까운 희생자와 3,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낳았지만 여전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sup>3)</sup> 그런 점에서 전염병의 역사는 인간의 오만을 기록해놓은 책이며, 이 책을 펼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게다가 전염병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갖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한다. 가령 질병의 책임을 물어 특정한 인종적·종교적 집단을 비난하거나 경제적 필요와 공중 보건의 요구가 갈등하는 것도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만큼 진보했고 문명화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병치시키는 것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전염병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우리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행동을 일깨운다.

불행한 것은 그런 전염병의 역사가 철저히 망각되었고, 중세 흑사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례가 역사책들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본격적으로

1) John M. Barry, *The Great Influenza: The Story of the Deadliest Pandemic in History*, 4th ed. (New York: Penguin Books, 2018), p. 224.

2) Simon Ballam and Dardis McNamee, “A New Age of Hubris Paved the Way to the Pandemic, Says Yale Historian Frank Snowden,” *Metropole* (March 30, 2020), <https://metropole.at/a-new-age-of-hubris/>

3) 데이비드 콰먼,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강병철 역, 제2판 (꿈꿀자유, 2020), pp. 363–364.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연구한 미국 역사학자는 자국의 역사 교과서들이 스페인 독감을 빼뜨렸고, 그나마 스페인 독감에 한 문장을 할애한 교과서마저도 사망자 수를 대폭 축소하여 기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sup>4)</sup> 특히 전염병의 비극은 생물학적 사건으로 여겨지는 탓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즉 비역사적이고 비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은연중 역사책에 기록될 자격을 박탈당한 듯하다. 이에 이탈리아 근현대사 전공자로서 최근에 전염병의 통사—『전염병과 사회』(Epidemics and Society)—를 출간한 미국 예일대의 스노든(Frank M. Snowden) 교수는 전염병을 역사적·사회적 현상으로 볼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나의 가설은, 전염병이 소수 전문가들만 관심을 둔 비의적인 하위 주제가 아니라 역사적 변화와 발전이라는 ‘큰 그림’의 주요한 일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염 질환은 경제 위기와 전쟁, 혁명, 인구 변화와 같은 사회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런 전제에서 그는 전염병의 공격을 받은 사회는 고유한 취약성이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전염병을 공부 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은 항상 기표들(signifiers)이고, 의료사의 도전은 그 기표들에 묻혀있는 의미를 가늠하는 것이다.”<sup>5)</sup>

이미 오래 전에 위대한 이슬람 역사학자인 이븐 칼둔(Ibn Khaldun)도 왕조와 문명의 변천이라는 장대한 역사적 안목에서 역병의 발발과 창궐을 설명했다. 왕조의 순환과 문명의 흥망을 설명하는 그의 핵심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아싸비야(asabiyyah)’이다. 이는 하나의 사회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공동의 행동을 추진하는 사회적 결속력과 연대의식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특정한 사회 집단은 왕조나 문명을 일으키고 일구어내는 힘을 얻는다. 그러나 성공과 번영은 거꾸로 ‘아싸비야’를 감퇴시켜 세대가 훌러감에 따라 왕조와 문명을 쇠퇴하게 만든다. 이븐 칼둔은 흑사병의 시대를 살아낸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역병도 이런 왕조사와 문명사의 패턴 속에서 설명했다. 즉 역병을 신과 자연의 변덕스런

4) 지나 콜라타, 「독감」, 인정희 (사이언스북스, 2003), p. 84.

5) Frank M. Snowden, *Epidemics and Society: From the Black Death to the Present*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pp. 2, 7. 강조는 인용자의 것.

행위의 결과로 설명하는 대신,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요인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본 것이다.<sup>6)</sup>

이런 시각에서 그는 왕조 후반에 많아지곤 하는 역병을 그 자체 인구 성장과 경제 발전의 결과로 이해했다. “역병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과잉으로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이다..... 부패와 오염된 습기가 늘어나는 원인은 과밀한 인구와 왕조 말기의 풍요함 때문이다. 이는 왕조 초기에 실시되었던 선정, 관용, 가벼운 세금의 결과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sup>7)</sup> 한 마디로 풍요함이 인구 급증을 낳고,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사회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어 사회적 해체를 낳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역병은 거대한 역사적 변동의 통합적 일부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에 직면하여 팬데믹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려고 고투하고 있다. 의학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정보들이 횡행하고 근거 없는 예측들이 만발하여 혼란을 가중시킨다. 당분간 우리의 의문에 명확히 답해줄 과학적·정치적 해결책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역사가 그것이다. 우리 인류는 어떤 중대한 사태에 맞닥뜨렸을 때 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레 역사로 눈길을 돌리곤 한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이 거기에 있는 까닭이다. 비록 이븐 할둔의 역사 법칙을 오늘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의 역사적 전망과 지혜를 빌려 쓸 수는 있다. 한 고전학자의 말대로, “이 순간에 해답을 제공해주는 것은 의학과 경제 모델만이 아니다. 역사 또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원인들과 그 가능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sup>8)</sup>

6) Kyle Harper, “The Coronavirus is Accelerating History Past the Breaking Point,” Foreign Policy (April 6,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4/06/coronavirus-is-accelerating-history-past-the-breaking-point/>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7) 이븐 칼둔, 『무갓디마: 이슬람 역사와 문명에 대한 기록』, 김정아 역 (소명출판, 2020), p. 503. 강조는 인용자의 것.

8) Kyle Harper, “The Coronavirus is Accelerating History Past the Breaking Point”. 강조는 인용자의 것.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 II. 과거에서 알 수 있는 것

### II-1. 전염병은 교류와 번영의 산물이다.

이븐 할둔의 역사 법칙이 아니더라도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19가 세계적 차원의 교역과 성장의 결과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쉬이 이해할 수 있다. 가령 14세기 중엽 유럽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선페스트, 즉 흑사병이 유라시아 교역로를 통해 흑해를 거쳐 지중해 시칠리아의 메시나에 상륙한 뒤 전 유럽을 감염시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야를 좀 더 확대해보면, 14세기의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은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 아래 형성된, 이른바 ‘13세기 세계 체제’의 맥락에서 거시 이론적으로 설명해볼 수도 있다.<sup>9)</sup>

여기서 ‘13세기 세계 체제’라는 개념의 타당성을 논할 계제는 아니지만, 이 개념을 거론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그런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연관과 교류,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인구 팽창이 팬데믹을 야기한 중요한 요인이다 조건이었다는 점이다. 1348년 당시 유럽의 메트로폴리스였던 피렌체가 전염병의 습격을 받고 단숨에 쓰러진 것도, 이 도시가 가장 번영하던 상업 사회였기 때문이다. 영국 역사학자 해리슨(Mark Harrison)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전염병은 다름 아닌 “상업의 간선로”를 따라 확산된 것이다.<sup>10)</sup>

근대 초기에 전염병은 항로를 통해 대륙적 차원에서 교환되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카리브 해의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했을 때, 유럽인들과 함께 천연두와 홍역도 ‘신대륙’에 도착했다. 불행히도, 타이노(Taino)라고 불린 아라와크 원주민들(Arawaks)은 이 새로운 질병에 집단 면역이 없었다. 이 ‘콜럼버스적 교환(Columbian Exchange)’으로 원주민들은

9) ‘13세기 세계 체제’에 대해서는 재닛 아부-루고드,『유럽 패권 이전: 13세기 세계 체제』, 박홍식·이은정 역 (까지, 2006)을 참조하라.

10) 마크 해리슨,『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이영석 역 (푸른역사, 2020), p. 23.

맥없이 죽어나갔고, 인구학적 참사는 아메리카 곳곳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유럽인들의 기술적·군사적 우위만큼이나 유럽인들이 부지 불식간에 퍼뜨린 전염병이라는 치명적인 무기였다.<sup>11)</sup> 맥닐(William H. McNeill)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때 아스테카인들 사이에서 천연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코르테스(Hernán Cortés)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sup>12)</sup> 전염병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가 격감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선박으로싣고 와 대농장에 투입했다. 그리고 이때도 흑인 노예들뿐만 아니라 황열병도 함께 실려 왔다. 이 황열병은 또 한 번 역사를 바꾸게 된다.

히스파니올라 섬의 서부는 프랑스령 생도맹그가 되었고, 이 식민지는 설탕 농장으로 번영하며 “프랑스 제국의 보석”으로 군림했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생도맹그의 설탕 농장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기에 생도맹그에서는 대규모 노예 반란이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을 수습한 나폴레옹은 “아이티의 스파르타쿠스”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가 이끈 “역사상 최대의 흑인 반란”이 발생한 아이티(생도맹그)를 진압하기 위해 60,000명 이상의 원정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황열병에 집단 면역을 갖고 있지 못했다. 순식간에 50,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쓰러졌고, 결국 아이티는 독립했다.<sup>13)</sup> 황열병의 충격은 북아메리카에 대한 나폴레옹의 열정도 꺾었다. 아이티의 참극 이후 나폴레옹은 북아메리카의 방대한 땅(루이지애나)을 미국에 매각했다. 나폴레옹은 또 한 번 전염병의 충격을 받았는데, 러시아 원정 당시 프랑스의 “위대한 군대”는 동장군뿐만 아니라 발진티푸스로 무너졌던 것이다.<sup>14)</sup> 과연 프랑스의 경우는 상업적 욕망과 군사적 야심이 인간과 물자의 트랜스내셔널·트랜스콘티넨털한 이동을 통해 전염병의 치명적인 확산을

11) Amy Goodman, “How Will Covid-19 Change the World? Historian Frank Snowden on Epidemics from the Black Death to Now,” Democracy Now! (May 18, 2020). [https://www.democracynow.org/2020/5/18/frank\\_snowden\\_covid\\_19\\_epidemics\\_history](https://www.democracynow.org/2020/5/18/frank_snowden_covid_19_epidemics_history)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Pandemics That Changed History: As Human Civilizations Rose, These Diseases Struck Them Down,” History.Com (April 1, 2020). <https://www.history.com/topics/middle-ages/pandemics-timeline>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12)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김우영 역 (이산, 2005), p. 227.

13) Goodman, “How Will Covid-19 Change the World?”

14)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p. 278.



야기했음을 잘 보여준다.

20세기에도 트랜스콘티넨털·글로벌 교환은 팬데믹을 야기했다. 그것도 훨씬 더 넓은 규모로, 훨씬 더 강한 정도로 말이다. 1918–20년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은 19세기 후반 이래 가속화된 세계화와 세계 대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19세기 후반 철도와 증기선, 전신과 전화 등에 기초한 이른바 ‘교통·통신 혁명’과 ‘제2차 산업 혁명’으로 ‘지구촌’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정도로 압축되어 좁아진 세계는, 그 자체 치명적인 독감 바이러스가 활동할 이상적인 무대였던 셈이다. 게다가 스페인 독감은 나폴레옹의 경우에서처럼 군대의 이동로가 그대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통로가 된 것 같다.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한 듯한데,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는 논란이 많다. 영국의 과학 저술가인 스피니(Laura Spinney)는 3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추정컨대 1917년 중국에서 캐나다를 경유하여 들어온 중국 노동자들의 합숙소, 1916년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 어촌인 에타플(Étaples)의 영국군 캠프, 그리고 더 유력하게는 1918년 미국 캔자스의 해스켈 카운티(Haskell County)를 포함한 권역의 징집자들이 모인 캠프 펀스턴(Camp Funston)이 그것이다.<sup>15)</sup> 그러나 기원이야 어떻든 간에 치명적 독감 바이러스는 전시의 인력 이동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된 것 같다. 상업과 함께 전쟁이 바이러스의 이동을 촉진한 것이다.

## Ⅱ-2. 전염병은 사회적 해체를 야기한다.

14세기의 흑사병은 전염병이 어떻게 사회를 해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목격자는 피렌체의 위대한 인문주의자인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이다. 1348년에 피렌체에

15) 스페인 독감의 “최초 감염자(patient zero)”를 추적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Laura Spinney, *Pale Rider: The Spanish Flu of 1918 and How It Changed the World* (New York: Public Affairs, 2017), pp. 153–165을 보라. 또한 Nabila Shaikh and David L. Heymann, “A Modern Plague,” review of Laura Spinney, *Pale Rider: The Spanish Flu of 1918 and How It Changed the World*,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vol. 35, no. 1 (Fall 2018), p. 87을 참조하라.

도달한 선페스트는 그때까지 보카치오가 알고 있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그는 이 충격적 경험을 글로 기록했고, 그 결실이 아마도 1451년에 완성했을『데카메론』, 즉 흑사병을 피해 모인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들려주는 100개의 이야기였다. 특히 이 책 서문에서 보카치오는 전염병이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심지어 친척들과 친구들도 환자를 버리고, 환자는 저 훌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것이다. 중세·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사를 전공한 미국 스탠퍼드대의 핀들린(Paula Findlen)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흡사 “14세기식 사회적 거리두기”였고,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극도로 압박했다.<sup>16)</sup>

시민들은 서로 오가기를 피하고, 이웃끼리조차 간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친척끼리도 서로 이따금밖에, 아니 거의 방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재난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매우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 형은 아우를, 아저씨는 조카를, 언니는 동생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조차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간병도 않거니와 찾는 것조차 피하곤 했습니다.<sup>17)</sup>

피렌체의 경쟁 도시인 시에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도시의 연대기 작가인 아놀로 디 투라(Agnolo di Tura)는 흑사병이 훑고 지나간 도시의 음습한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형제를 버렸다. 이 질병은 숨과 시각을 통해 발생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 죽었다. 돈이나 우정 때문에 죽은 자를 묻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 아놀로 디 투라는... 내 다섯 아이를 내 손으로 묻었다... 너무

16) Paula Findlen, “What Would Boccaccio Say About Covid-19?: The Florentine Humanist’s Description of the Black Death in the Decameron Remains One of the Most Thoughtful Accounts of a Society Living Under a Pandemic,” Boston Review (April 24, 2020). <http://bostonreview.net/arts-society/paula-findlen-what-would-boccaccio-say-about-covid-19> (검색일: 2020년 6월 28일)

17) 보카치오, 『데카메론』, 한형곤 역 (동서문화사, 1988), p. 17.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들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었다.” 현대의 역사학자 켈리(John Kelly)는 전염병과 이것이 유포한 공포심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단숨에 녹여버리는 일종의 “용매”로 작용했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각기 고립된 “섬”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전염병의 사회적 해체 효과를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표현했다.<sup>18)</sup>

이런 상황에서 망자들에 대한 예우가 지켜질 리 만무했다. 보카치오의 목격담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죽어갔고, 시체 썩는 냄새로 비로소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나마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체가 문밖으로 실려 나왔는데, 거리를 지나다보면 그런 시체들을 수없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시신이 성당에 갈 때면 친척들과 이웃들이 따라가며 애도하는 일이 사라졌고, 관도 모자라 관 하나에 두세 구의 시신을 넣는 일이 허다했다. 더욱 놀랍게도, 묘지도 모자라 구덩이 하나에 몇 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묻혔다. “그런 구덩이 속에는 배에 짐을 싣듯이 몇 층으로 시체를 포개 놓았으며, 구덩이는 금방 가득차서 밖으로 넘쳤습니다.”<sup>19)</sup> 피렌체의 연대기 작가인 디 코포 스테파니(Marchionne di Coppo Stefani)도 그런 상황에 대해 시신 묻는 구덩이가 “라자냐” 같다는 충격적인 은유를 동원하여 묘사했다.<sup>20)</sup>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은 희생양을 찾았다. 흑사병의 시대에 손쉬운 먹잇감은 유대인들이었다. 역병의 공포를 첫 번째로 보여준 악명 높은 사례가 바로 1349년에 발생한 스트라스부르 사건이다. 이때 2,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도 시민들이 길어 먹는 우물에 독을 풀어 병을 유포한 혐의로 개종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양자선택에 내몰렸다. 절반은 자신의 종교를 부인했고, 나머지 절반은 유대인 묘지에 끌려나와 산 채로 화형을 당했다. 그런 뒤에 도시는 유대인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sup>21)</sup>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발호했다. 유대인들은 성난 군중에 의해 온갖 모욕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고, 당국에 의해서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18) 디 투라와 켈리의 말은 모두 제니퍼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이규원 역 (산처럼, 2020), p. 49에서 재인용.

19) 보카치오, 『데카메론』, pp. 18–19.

20)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p. 47.

21) Snowden, Epidemics and Society, p. 64.

일을 자백하라고 고문을 당했다. 이는 가히 “최초의 홀로코스트”라고 할 만했다.<sup>22)</sup> 그런 가운데 “겁에 질린 채 살면 죽는다”를 모토로 삼은 깡패 집단이 활보하며 한밤중에 난입하여 몸값을 갈취하거나 폭력과 살인을 자행했다. 여기에 자신을 채찍질하며 피투성이로 엎드려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고행자들도 있었다.<sup>23)</sup> 이런 것들이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이 휩쓸고 간 해체된 사회의 초상이었다.

과연 사회적 결속이 풀리고 연대가 녹아버린 세계에서는 무엇보다 빈자와 이단, 외국인 등의 소외된 주변적 소수 집단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될뿐더러 처음부터 질병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 찍혀 핍박받는 것이 거의 ‘전염병의 법칙’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다. 이들 소수 집단들은 역병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피할 여력도 없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기에 감염 질환에 특히 취약했고,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박해에 저항할 만한 힘을 보유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당시에 숨으로 병이 퍼진다고 믿던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숨을 내쉽으로써 사람들을 죽인다고 믿었을 것이다.<sup>24)</sup>

### II-3. 전염병은 인류의 지식을 시험한다.

핀들런은 전염병이 “지식과 무지, 진실과 기만 사이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궁극적 시험대”로 기능했다고 본다. 과연 흑사병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 감염 질환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아직 세균 감염 이론을 몰랐던 그들은 이 질병을 점성술이나 복잡한 체액 이론 등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물론 당시에는 선폐스트를 신의 징별로 이해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따라서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질

22) Goodman, “How Will Covid-19 Change the World?”

23)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pp. 44–47.

24) Findlen, “What Would Boccaccio Say About Covid-19?”



수 없었다. 다시 핀들런에 따르면, “처음에 어느 누구도 치료라고 할 만한 것을 제공할 수 없었다.”<sup>25)</sup>

당시에 흑사병 치료법으로 알려진 것들을 보면 경악스런 것이 많다. 가령 포도주 마시기나 계란이나 야채 먹기, 에메랄드 부숴 먹기, 양파를 집안 곳곳에 두기, 환자 쳐다보지 않기 등은 점잖은 편이다. 시궁창에서 살기나 오줌이나 고름 마시기 등에 이르면 치료법이 아니라 악화법이라고 할 만하다. 더욱 기상천외한 것도 많다. 가령 환자의 부어오른 가래톳에 개구리를 올려놓고 이 불쌍한 동물로 하여금 독을 뺏아들이게 하여 터져 죽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스럼에 뜨거운 양파와 무화과를 대거나 대변으로 찜질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한다.<sup>26)</sup>

그러나 인류가 무지의 어둠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유럽에서 흑사병은 1347년 메시나에서 처음 보고된 후 1734년 다시 메시나에서 마지막 사례가 보고되었다. 전염병이 암추 400년 동안 주기적으로 창궐한 것이다. 이 긴 세월 동안 전염병에 대한 지식과 대응도 부단히 진보해나갔다. 이 시기에 전염병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세속화 과정”—이 나타났는데, 특히 “공공선”的 개념에 기초한 시민 문화가 발전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에서 좋은 행정과 건강한 시민의 개념이 연결되었다고 한다.<sup>27)</sup>

이로부터 방역의 개념이 나타났다. 최초로 확인되는 사례는 1377년 베네치아의 경우이다. 처음에는 30일 격리되었으나, 나중에 ‘방역(quarantine)’의 어원이 된 ‘40일(quaranta)’로 연장되었다. 하필이면 40일이 선택된 것은 히포크라테스를 읽은 의사들이 전형적인 전염 기간을 이 수치로 추정했을 뿐만 아니라 40일은 기독교에서 각별히 의미 있는 숫자였기 때문이다(창세기의 40일 밤낮의 대홍수, 40년간 광야를 해맨 이스라엘 백성, 십계를 받기 전 40일간 시나이 산에 체류한 모세, 40일간의 유혹을 겪던 예수,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25) Ibid.

26)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pp. 39–42, 52–54.

27) 해리슨,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pp. 56–58.

며문 예수, 그리고 사순절의 40일).<sup>28)</sup> 과연 방역은 의학과 종교를 겸비한, 역병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 대응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흑사병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던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에서 그와 같은 방역의 개념 아래에 다양한 행정적·의학적 대응들이 잇따랐다. 공중 보건 기구가 창설되고 마스크와 가운 등 개인 보호 장구(PPE)가 고안되며 격리 병원(lazaretto)이 설립되었다.<sup>29)</sup>

19세기 콜레라의 경우도 지식의 한계와 진보가 동시에 확인된다. 흑사병의 유행 아래로 그때까지 질병은 더럽고 악취 나는 공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독기(miasma) 이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스노(John Snow)라는 의사가 당대의 잘못된 상식과 맞서 싸우면서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질병의 확산을 막았다. 그는 1854년에 정교한 감염 지도를 작성하여 런던 소호 지구 브로드 스트리트의 우물이 오염되었음을 밝혀내고 급수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함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했다. 이런 위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기 이론은 간단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낡은 과학의 지지자들은 스노의 이론을 조롱하고 의심했던 것이다.<sup>30)</sup> 과연 19세기에도 콜레라는 “지식과 무지, 진실과 기만 사이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궁극적 시험대”였던 셈이다.

20세기 스페인 독감 때에도 사정은 이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전혀 효능이 없는 오일이나 주스로 만든 약제 처방이 당시에 추천되었다. 심지어 위스키와 포도주 음용이 널리 인정된 치료법이었다. 아직도 얼음 밑에 잠복해 있는 인플루엔자가 재출현해도 대응책이 없음을 고려하면, 당시 그런 치료법들이 나돌았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무지이다. 즉 당시의 전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정부들은 독감의 확산을 쉬쉬했다. 강력한 정보와 언론의 통제가 시행된 것이다. 애국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체의 행위가

28) 박홍식, “흑사병에 대한 도시들의 대응,”『서양중세사연구』, 25 (2010), p. 203; Findlen, “What Would Boccaccio Say About Covid-19?”, Snowden, Epidemics and Society, p. 70.

29) 박홍식, “흑사병에 대한 도시들의 대응,” pp. 200–204; Goodman, “How Will Covid-19 Change the World?”

30)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p. 160–169. 또한 스노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스티븐 존슨, 『감염 도시: 대규모 전염병의 도전과 도시 문명의 미래』, 김명남 역 (김영사, 2020)을 참조하라.



엄격한 징벌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언론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례는 필라델피아이다. 1918년 9월 초 인근 해군 기지에서 독감이 유행하면서 군 병원이 가득 차자 환자들이 시내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독감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9월 28일에 전시 공채 퍼레이드라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시 당국도 위험을 감지했고, 일부 의사들은 행사 취소를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시는 행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필라델피아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만 11,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당시의 참상을 한 관찰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나가고 있다.”<sup>31)</sup> 그런데도 필라델피아 신문들은 상황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10월 15일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다. “과학적 간호로 유행병 멈추다... 당국은 모든 상황 장악했다고 밝혀.”<sup>32)</sup>

결국 이 1918년 독감이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된 것도 전시에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만 독감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한’ 스페인에서도 무지가 무모함을 낳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신의 징벌로 믿어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스페인 사모라(Zamora)의 주교는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역병의 종식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결과는 사모라 시가 스페인에서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여 1918년 10월경에 이미 관을 짤 나무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느 논평자들은 전염병과 싸우려면 치료제와 백신만큼이나 “인간의 진보(anthropological advances)”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상기시키기도 했다.<sup>33)</sup> 이는 전염병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자연과 인간의 싸움일 뿐만 인간과 인간의 싸움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는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음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31) Barry, Great Influenza, p. 223.

32)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pp. 222–226. 당시 필라델피아 퍼레이드에 대해서는 Barry, Great Influenza, pp. 205–209을 참조하라.

33) Shaikh and Heymann, “A Modern Plague,” p. 87.

## Ⅱ-4. 전염병은 정치적 긴장을 촉발한다.

아직도 그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고대 로마의 안토니누스 역병은, 여전히 그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엄청난 사망자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도 사람들은 이 역병이 올림포스 신들의 분노를 사서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다. 역병의 기세는 멈출 줄 몰라서 거리에는 시신들이 쌓여만 갔다. 이에 철학자—황제로 이를 높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비상사태에 질서를 유지하며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묘지로 쓰는 일을 금지하거나 시신을 공적 비용으로 매장해주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병사들이 역병으로 쓰러지면서 계르만족과 맞서 싸울 병력이 부족해지자 검투사들도 징집했다고 한다. 그리고 역병의 시대에도 오히려 치솟은 ‘빵과 서커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황제는 더 많은 잔인한 오락거리들을 제공했고, 그런 가운데 많은 기독교도들이 대중의 쾌락을 위해 희생되었다.<sup>34)</sup> 고대에도 전염병은 희생양을 만드는 논리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역병에 대한 대응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논리이다. 역병의 시대에도 대중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제기하기 마련이고, 당국은 이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응해야 한다. 당국이 억압 일변도라면 대중은 불만을 품게 되며, 거꾸로 방임한다면 제대로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흑사병의 시대에도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서 그런 정치적 논리가 확인된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은 짧은 시기에 엄청난 인구 손실을 초래했고, 노동력 부족 사태는 노동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주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부족한 노동력은 근교 농촌(contado) 등지로부터 충당하면 되었으나, 그런 이주민들의 대량 유입으로 사회적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그런 가운데 하층 계급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자각하며 정치 세력화되기 시작했다. 흑사병 이후 반란이 급증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1378년 모직물 노동자들인 치옴피(ciompi)의 반란은 하층 계급이 경제적 요구 투쟁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시정에 참여하고 관료를

34) 라이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pp. 27–29.



선출하는 권한과 다양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요구했음을 보여준다.<sup>35)</sup>

19세기 콜레라의 경우도 전염병의 정치학을 잘 보여준다. 콜레라가 도시를 휩쓸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증대하고 종종 폭력 사태가 연출되곤 했다. 왜냐하면 전염병의 고통과 죽음을 불평등하게 주로 하층 계급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국의 강압적인 방역 조치들은 더욱 도시 빈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예컨대 1884년 콜레라가 유행한 나폴리의 경우에 시 당국이 파견한 방역 팀과 진료 팀은 마치 적진 속에 급파된 군대처럼 뻣뻣하고 위압적으로 행동하여 주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자초했다. 게다가 도시의 공기를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유황불을 피웠는데, 그 냄새가 불쾌할 뿐만 아니라 하수구의 쥐들을 거리로 내보는 효과가 있어서 이 조치를 주민들은 극도로 싫어했다. 그런가 하면 보건 당국은 도시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위장의 무질서(설사)까지도 감시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설사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당국에 보고하라고 명령했지만, 스노든의 표현을 빌리자면, “콜레라의 전염병이 은폐의 전염병과 마주쳤다”.<sup>36)</sup> 한 술 더 떠서 의사들과 이들을 호위하는 무장대, 들것 드는 사람들과 같은 보조원들은 자주 적대적인 군중들의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시 당국은 이런 폭력 사태를 종종 “소요” “폭동” “반란” 등으로 표현했고, 군중들을 “금수들” “어중이떠중이들” “천한 백치들” 등으로 불렀다.<sup>37)</sup>

불신은 아래(대중)에서 위(엘리트)로만 향하지 않았다.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의 불신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했다. 도시의 사회경제적 엘리트들 사이에도 “위험 계급”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엘리트들은 도시 하층 계급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위험한 계급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콜레라의 시대에는 의학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을 직관했다. 그리하여 하층 계급에 대한 반동적 억압이 잇따랐다. 1848년 혁명기에 카베냑(Louis-Eugène Cavaignac) 장군이 주도한 폭력적인 탄압이나 1871년 파리 코뮌에 대한 티에르(Adolphe Thiers)의 잔인한 진압 등은 공히 엘리트들의 과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35) 박홍식, “흑사병은 도시 피렌체를 어떻게 바꾸었는가?”『서양사론』, 130 (2016), pp. 109–116.

36) Snowden, *Epidemics and Society*, p. 252.

37) *Ibid.*, p. 253.

스노든에 따르면, 콜레라는 반동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고통과 죽음이 힙쓸고 지나간 뒷자리에서 “위험 계급”을 두려워할 이유를 증폭시켰음은 사실이다.<sup>38)</sup>

확실히, 흑사병이건 콜레라건 모든 전염병은 정치적 긴장을 촉발했다. 전염병의 고통과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고, 당국의 일방적 방역 조치는 불신과 의혹, 저항을 불러왔다. 이는 다시 하층 계급에 대한 엘리트들의 감시와 억압을 야기하여 정치적 대결을 고조시켰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핀들런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사회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경제가 균열되어 “근원적으로 병든” 사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카치오 시대의 피렌체도 극심하게 병을 앓으며 모든 것이 멍춰버린 상태였다. 보카치오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진실을 포착한 최초의 인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묘한 균형, 즉 어떻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함이 없이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명료하게 제시한 최초의 한 명”이었다.<sup>39)</sup> 그리고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였다.

### III. 과거와 현재의 비교

이상으로 오늘날 코로나19라는 긴박한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로 최근의 연구들과 논평들을 중심으로 제시해보았다.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전염병과 세계화(교류사), 전염병과 사회(사회사), 전염병과 과학(지성사), 전염병과 정치(정치사) 등 다양한 역사적 테마들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테마들을 탐색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습득하고 폭넓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역사적 감각과 안목에서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비교해보고, 이런 비교를 통해 현재적 이슈들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인문학적 성찰을 이끌어낼 수

38) Ibid., p. 255.

39) Findlen, “What Would Boccaccio Say About Covid-19?” 강조는 인용자의 것.



있을 것이다.

최근 스탠퍼드대 연구진을 이끈 역사학자 펀들린 교수도 과거와 현재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면서 흑사병과 코로나19의 흥미로운 유사점을 언급한바 있다. 먼저, 예나 지금이나 질병과 감염, 사망 등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 및 보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잘못된 정보가 실상을 은폐하여 혼란을 조장하곤 한다. 각종 음모론과 미신, 낙인찍기, 사재기 등이 횡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역병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도 과거와 현재가 유사하다고 한다. 이런 정치적 긴장은 역병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내세워 각국으로 하여금 보복 행동에 나서게 한다.<sup>40)</sup> 그런 정치적 긴장이 오늘날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세계를 엄습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바이러스 탓에 잔뜩 움츠린 채 각국이 보호 장벽을 높이 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 냉전’이 운위될 정도로 긴장이 팽배하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긴장 외에 국가 내부의 사회적·정치적 긴장에 주목해야 한다. 즉 계급과 세대, 성별, 인종 등에 따라 코로나19에 의해 받는 타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혜도 차별적이어서 사회적 위험도와 그에 따른 정치적 폭발력이 점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은 일찍이 이탈리아의 경제사학자 치폴라(Carlo M. Cipolla)도 통찰했다. 전염병은 설핏 평등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치폴라는 흑사병이 창궐한 17세기 토스카나 공국의 프라토 지역을 미시적으로 연구하면서 역병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은 빈민이었고, 반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피해도 덜 입었을 뿐더러 당국의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보건 규정에 얹매어 불편함을 느꼈던 쪽은 하층 계급이었다. 치폴라가 보여준 그런 사회적·정치적 긴장은 오늘날에도 전염병 대응을 고민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sup>41)</sup>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희생양

40) Melissa de Witte, “For Renaissance Italians, Combating Black Plague Was As Much About Politics As It Was Science, According to Stanford Scholar,” Stanford News (May 12, 2020), <https://news.stanford.edu/2020/05/12/combating-black-plague-just--much--politics--science/> (검색일: 2020년 6월 28일)

41) 카를로 M. 치폴라, 『크리스토파노와 흑사병』, 김정하 역 (정한책방, 2017), pp. 99, 119.

만들기가 출현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믿음 속에서 비등해지는 중국인들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은, 흑사병의 시대에 서유럽인들이 이 질병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이슬람 세계에서 왔다는 믿음을 연상시킨다. 당시에 서유럽인들은 흑사병을 “오리엔트 역병”이나 “레반트 역병”으로 부를 정도였다. 19세기에도 콜레라가 유럽에 당도했을 때 유럽인들은 이 역병을 “아시아 병”으로 불렀다.<sup>42)</sup> 이처럼 역병이 밖에서, 즉 ‘오리엔트’나 ‘아시아’에서 왔다는 생각은, ‘오리엔트’와 ‘아시아’가 역병을 낳을 정도로 더럽고 무지하고 열등한 지역이라는 편견을 전제하고 있다. 흑사병이든 콜레라든 코로나19든 전염병에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뿌리 깊은 담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sup>43)</sup> 그런 편견과 차별의 담론은 잘못된 정보와 무지에 근거하고, 거꾸로 잘못된 정보와 무지는 그런 담론을 강화한다.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보 통제도 잘못된 정보와 무지를 조장하며 편견과 차별의 담론을 방치한다. 그런 사례로는 미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의 엄격한 전시 정보 통제가 이루어졌던 스페인 독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보 통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또한 방역을 위한 당국의 엄격한 행정적·과학적 대응도 사람들의 의심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1918년에 종교적 동기와 결합되어 나타난 백신 반대 운동은 지금도 존재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sup>44)</sup>

그런 점에서 투명한 정보와 올바른 지식이야말로 역병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아닐까 한다. 토뇨티(Eugenio Tognotti)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방역과 공중 보건 자체는 전염병을 통제하는 필요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동시에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느껴져 “의혹과 불신, 폭동의 기운”을 낳기도 한다(예컨대 이탈리아 남부의 교도소들에서 일어난 폭동을 생각해보라). 또한 종종 계급적·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격리는

42) Eugenia Tognotti, “Lessons from the History of Quarantine, from Plague to Influenza 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9, no. 2 (2013).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559034/>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43) Chris Horn, “Covid-19 Impact: The History of Plague and Contagion,” [https://www.sc.edu/uofsc/posts/2020/03/covid\\_impact\\_nukhet\\_varlik.php#.Xvr47Ph7mUk](https://www.sc.edu/uofsc/posts/2020/03/covid_impact_nukhet_varlik.php#.Xvr47Ph7mUk) (검색일: 2020년 6월 30일)

44) Shaikh and Heymann, “A Modern Plague,” p. 87.



이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다.

더욱 일반적으로는 공중 보건의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방역은 종종 개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와 싸우기 위한 비상 대권을 총리에게 허용한 형가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전염병이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토뇨티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공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적 신뢰는 정규적이고 투명하며 폭넓은 소통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런 소통에서는 공중 보건을 위한 개입에 수반되는 부담과 혜택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중 보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거의 가치 있는 교훈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sup>45)</sup>

마지막으로, 핀들런 교수가 들려주는 보카치오의 교훈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글로벌 도시 뉴욕을 강타한 팬데믹의 위력이 14세기의 글로벌 도시 피렌체를 쓰러뜨린 그것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는 점에서 14세기 인문주의자의 교훈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보카치오의 걸작 『데카메론』은 흑사병이 도달하기 전 활기차게 번영하던 피렌체 상업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흑사병의 한가운데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대신, 과거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쾌활하지만, 통렬하게 정곡을 찌르는 세부 묘사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이기적이며 비겁한가를 고찰했다. 그런 인간의 오만과 탐욕, 정념이 책에 빼곡하다. 결국 보카치오가 동료 피렌체인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흑사병이 이 도시에 당도한 것은, 신의 의지나 별들의 배치 때문이 아니라 “분주하게 발전하는 들썩거리는 소비 사회의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카치오는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병이 지나가자 도시는 재건축을 시작하며 예전의 번영과 쾌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가 특히 그처럼 심오한 해체의 순간을 겪은 후에 바뀔 수 있을지 여부”야말로 과거 보카치오의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이 핀들런의 요점이다.<sup>46)</sup>

45) Tognotti, “Lessons from the History of Quarantine”. 강조는 인용자의 것.

46) Findlen, “What Would Boccaccio Say About Covid-19?”

이런 생각은 스노든 교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사스(SARS)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에 의해 우리가 “영원히 변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과 공명 한다.<sup>47)</sup> 그의 충고는 역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의 삶과 일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도 참혹한 일을 겪어놓고도 병이 물러가고 생존자가 되면 즉각 옛 ‘노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또는 지젝(Slavoj Žižek)이 경고하듯 시스템을 약간만 수정하여 “예전처럼 매끄러운 일 처리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sup>48)</sup> 필경 그런 회귀는 망각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스노든이 말하듯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역사야말로 그런 집단 기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감히 비유컨대, 역사학과 인문학에서 말하는 집단 기억은 어쩌면 의학에서 집단 면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47) Susan Gonzalez, “Historian Frank Snowden: May We Be ‘Forever Changed’ by Coronavirus,” Yale News (April 8, 2020).  
<https://news.yale.edu/2020/04/08/historian-frank-snowden-may-we-be-forever-changed-coronavirus> (검색일: 2020년 6월 20일)

48)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0), p. 20.